

##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이 정 숙<sup>†</sup>

김 은 경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대 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대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남녀 중학생 597명을 대상으로 학대 및 방임경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학대의 하위차원인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였고, 부모화 척도를 사용하여 하위차원인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정성을, 그리고 수치심척도를 사용하여 수치심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대의 하위변인들 가운데 정서적 돌봄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방임으로, 불공정성을 설명하는 변인은 방임과 정서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의 하위변인들 가운데 수치심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다. 부모화와 학대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방임과 부모화 하위요인인 정서적 돌봄은 수치심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와 부모화 하위요인인 정서적 돌봄은 수치심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치심은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학대의 각 하위요인과 불공정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대와 수치심, 부모화의 관계를 밝히고, 학대 경험이 수치심을 통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모화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주요어 :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수치심, 부모화

<sup>†</sup> 교신저자 : 이정숙,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Tel : 02-2220-0618, Email : ljs1994@hanyang.ac.kr

어린 시절부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아서 부모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등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부모화(parentification)라고 한다(조은영, 2004; Boszormeny-Nagy & Spark, 1973). 부모화된 아동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은데(Jurkovic, 1997), 이는 부모에 대한 충성과 배려가 사회적 덕목으로 권장되어 온 사회적 전통 안에서(박병호, 1995) 부모를 강박적으로 배려하는 자녀의 행동도 일종의 효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며, 같은 맥락에서 심리학자들도 오랫동안 자녀의 그런 행동이 갖는 심리적 기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Jurkovic, 1997).

그런데 Bowen(1976) 이후 자아분화라는 개념이 자리잡으면서, 젊은 부부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원가족 부모와의 미분화에서 비롯된다는 자각이 일기 시작했다. 더불어서 부모 자식 간의 역전된 관계에 대한 제고가 일어나면서, 점차 부모자녀 관계에서 적정수준을 넘어선 자녀의 강박적인 배려가 결국 자녀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로부터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가 낳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Bowlby, 1973; Davies, 2002). 이런 맥락에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는 부모화된 자녀(parentified child)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 부모화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문제를 드러내기 전에 그 징후를 보이는데, 그런 아동은 책임감이 과도하게 강하고 발달수준을 넘어서는 책임을 안고 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미성숙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개 아동은 부모역할을 공공연하게 요구받기보다는 부모를 만족시키

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등 미묘한 형태를 통해 부모역할을 발달시키게 된다(Boszormeny-Nagy & Spark, 1973; Minuchin, 1974; Jurkovic, 1997; Valteau, Bergner, & Horton, 1995). 결국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익숙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자아분화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Erikson, 1959;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그런데 Jurkovic(1997)에 따르면 부모화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는 이것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부모화를 적응적 유형과 파괴적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즉, 적응적 부모화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살핌이나 돌봄이 과도한 상태이지만 이것이 일시적이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거나, 혹은 장기간 책임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지받고 있으며 가족이나 공동체에 의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부모화의 역할을 내면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반해 파괴적 부모화란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자녀가 부적절할 정도로 과도한 책임을 떠맡고 있고, 관계윤리적으로도 부모자녀 관계가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상태를 일컫는다.

아동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를 지적한 이는 Jurkovic(1997)이었다. 그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 중에 파괴적 부모화 경향을 가진 사례가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어린 나이의 아동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모에 의해 위협받거나 방치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러한 긴장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극복하고자 부모화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 학대받은 자녀의 부모화 현상

아동학대는 항상 존재해왔으며 오늘날보다 이전 세대에 더욱 흔한 것이었으나(Radbill, 1987),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1년 미국의 소아과학회에서 ‘피학대 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주제로 학회가 열렸고, 이듬해 Kempe, Silverman, Steele, Droegemueller와 Silver(1962) 등이 이 증후군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학회지에 실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Kempe와 Helfer(1974)는 피학대아동증후군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 상처가 부모나 양육자의 의도적인 행위나 태만의 결과인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초기에는 이처럼 아동학대의 범위가 주로 신체적 학대에 한정되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물론이고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이나 행위로까지 넓혀지고 있다.

학대의 폐해는 예측할 수 있는 즉각적인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부적응적인 반응행동을 낳는다. Van der Kolk와 Fislser(1994)는 학대 받는 아동들이 자신의 정서적 느낌이나 충동의 강도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학대받는 상황의 공포감과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관련된 단서를 찾는 데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Crittenden & DiLalla, 1988), 이러한 과잉경계는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대의 위협이 없는 사회적 상황을 변별해내지 못하는 과도한 경계심은 이런 아동의 정상적인 적

응을 저해한다(Herman, 1992).

때때로 그들은 화난 부모를 달래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는데(Hennessy, Rabideau, Cicchetti, & Cummings, 1994), 높은 경계심과 환경에 대해 적응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부모의 행동을 통제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서, 부모나 가정을 돌보는 것과 같은 가성숙의 형태를 취하거나 과도한 인내 및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정서적 억압의 형태를 띠게 된다. 과도한 경계심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행동통제의 발달로 인해, 학대를 받지 않고 자란 일반 아동과는 다르게 학대 받고 자란 아동의 발달양식은 부모를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환경의 부재를 보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Main & Hesse, 1990). 이러한 부모에 대한 통제나 조절의 맥락에서 부모화가 발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학대의 또 다른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이 그들의 부모가 학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동의 관점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심하게 비난하는 부모의 태도는 종종 관계형성의 방식이자 애정의 표현으로 지각된다. 이것이 학대받는 아동이 직면하는 역설적 딜레마이다(Wekerle & Wolfe, 1996). 이런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경험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끝까지 부모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kempe et al., 1962). 이러한 적응의 양상은 주로 문제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부모가 옳다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부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 떠맡는 부모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Jurkovic, 1997).

### 수치심의 매개효과

학대적 가정 환경과 자녀의 부모화 경향성이 서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Carroll & Robinson, 2000)를 통해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를 가정할 수는 있으나, 학대 받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여 모두 부모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라도 개인이 받는 영향의 정도와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그 사건에 대한 개개인의 민감성이나 지각, 해석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유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성장기에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자녀를 학대하는 비율이 30% 이하라는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증명된다(Kaufman & Zigler, 1989).

학대적 환경과 부모화 경향성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피학대자가 사건에 관련하여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고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수치심으로서, 학대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이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Wells & Jones, 1996), 전철은(2002)은 심리적 피학대가 수치심을 매개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촉발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때 실패의 결과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다(Lewis, 1992). 즉, 수치심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서(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이런 점에서 그것은 부정적 정서(Tangney, Wagner, & Gramzow, 1992; Tangney,

1995)이고, 사회적 정서(Shott, 1979; Scheff, 1988)이며, 자의식 정서(Crozier, 1998)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학대 등 가족내 역기능적인 역동과 수치심과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Crittenden & DiLalla, 1988; Kempe et al., 1962), Loader(1998)는 수치심이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Boszormeny-Nagy 등의 연구(1973)에 의하면 수치심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에 의해 일어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기대를 하면, 그러한 상황을 내면화시킨 아동은 자신의 온전한 욕구나 의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면서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가성숙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부모화 경험을 촉발시킨다(Boszormeny-Nagy & Spark, 1973). 또한 수치감은 가족 내 학대 경험에 의해 생겨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적절한 거울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도 일어난다(Andrews, 1995; Gilbert & McGuire, 1998). 그럴 때 아이는 중요한 타인에 의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수치감을 발달시키게 되고, 고통스러운 감정인 수치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대한 거짓자기를 형성하여 그 안에 숨는다. 이러한 거짓자기를 자신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 내적으로 스스로를 부적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로서 지지를 받고자 하는데(Glickauf-Hughes & Wells, 1997), 자녀들이 이러한 역동에 휘말리게 되면 부모를 강박적으로 돌보는 부모 역할을 통해 수치감을 방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만성화된 부모화는 수치감 증상과 관계가 있다(Cleary, 1992).

이상에서 보듯이 학대와 수치심 간의 관계, 혹은 수치심을 포함하는 몇 가지 부정적 정서

와 부모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갖는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또한 기존의 부모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20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부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경험한 물리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각각의 변인들이 부모화를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학대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학대가 수치심을 통하여 부모화 증상에 영향을 주는 발생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시내 4개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633명이었으나, 이중 한 면 이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무작위로 응답한 3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59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남학생은 294명(49.2%)이었고, 여학생은 303명(50.8%)이었다. 연령은 13세가 10.1%, 14세가 29.1%, 15세가 54.3%, 16세 이상이 6.5%로 나타나 15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전문대졸이나 대졸이 42.7%,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52.1%로 가장 많았다.

### 측정 도구

#### 학대 및 방임 척도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척도들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김현수(1997)의 학대 및 방임경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대 및 방임척도는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임 척도, 신체적 학대 척도, 정서적 학대 척도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척도는 총 7문항으로서 안전관리 소홀, 의식주관리 소홀, 건강관리 소홀, 비행의 방조, 애정의 소홀에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적 학대 척도는 7문항으로서 가벼운 형태의 신체적 학대, 상해의 위험이 있는 신체적 학대, 습관적 구타, 동기상 훈육차원의 체벌과 뚜렷이 구별되는 처벌 및 폭력 행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적 학대 척도 역시 총 7문항이며, 모욕적 행동에 관한 문항, 차별이나 편애에 관한 문항, 언어적 학대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는 각각의 문항에 관하여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전혀 없었다’, ‘일 년에 한두 번’, ‘3, 4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으로 구성된 5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방임이 .71, 신체적 학대가 .87, 정서적 학대가 .86, 그리고 학대 및 방임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 수치심 척도(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 PFQ-2)

Harder와 Lewis(1987)가 개발한 척도인 PFQ-2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를 우리말로 번안한 심중온(1999)의 개인느낌 질문지에서 수치심 관련 10문항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치심에 관련된 정동적인 기술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한 것으로, ‘당황스럽게 느낀다’,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등이 포함된다.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자의식’ 등 용어는 따로 쉬운 말로 풀이한 내용을 덧붙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수치심 경향성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 **부모화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FRS-Y)**

Jurkovic, Kuperninc과 Casey(2000) 등이 개발한 FRS-Y(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FRS-Y는 PQ-Y(Parentification Questionnaire-Youth; Godsall & Jurkovic, 1995)를 토대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PQ-Y가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공정성 등의 항목이 섞여있는 일차원적인 척도인 데 반해서, FRS-Y는 34개의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도구적 돌봄(Instrumental Caregiving)과 정서적 돌봄(Emotional Caregiving)과 공정성(Fairness)이라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각 항목의 점수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이며, 도구적 돌봄 12문항, 정서적 돌봄 9문항, 공정성 13문항의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도구적 돌봄을 제외하고 정서적 돌봄과 불공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돌봄 관련 문항에는 ‘부모님들이 싸울

때 내가 편들어주기를 바랍’, ‘내가 가족을 돌봐주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성 관련 문항에는 ‘집안에서 내 몫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함’, ‘가정에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줘야 함’ 등이 포함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공정성에 해당하는 문항을 부모화의 맥락에 맞추어 불공정성으로 역코딩하여 점수화하였다. Jurkovic, Kuperminc, Sarac과 Weisshaar(2004)의 연구에서 얻어진 공정성의 내적 신뢰도는 .81이고, 물리적 부모화 및 정서적 부모화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5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정서적 돌봄이 .65, 불공정성이 .72로 나타났다.

####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서울 소재 4개 중학교에서 담당교사에 의해 수업시간 중에 실시되었다. 사전에 연구자가 해당교사에게 설문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교사가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각 변인의 신뢰성 검정을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각 변인의 영향력 검증과 매개모형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표 1은 변인간의 상관을 표기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에서 학대는 부모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r=.455, p<.001$ ), 학대의 하위변인인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부모화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 돌봄( $r=.096\sim.109$ )보다는 불공정성( $r=.381\sim.538$ )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학대의 하위변인과 수치심의 상관관계를 보면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수치심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293\sim.397, p<.001$ ). 수치심은 부모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r=.332, p<.001$ ), 수치심과 부모화 하위변인인 정

표 1. 학대와 부모화, 수치심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방임	1	.349***	.382***	.701***	.293***	.109***	.496***	.387***
2. 신체적 학대		1	.695***	.831***	.309***	.103*	.381***	.303***
3. 정서적 학대			1	.884***	.397***	.096*	.538***	.403***
4. 학대				1	.418***	.126***	.591***	.455***
5. 수치심					1	.175***	.354***	.332***
6. 정서적 돌봄						1	.226***	.781***
7. 불공정성							1	.782***
8. 부모화								1

\*  $p<.05$  \*\*\*  $p<.001$

표 2. 학대가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F
정서적 돌봄	상수	1.625		35.521	.150	6.876***
	방임	.062	.077	2.506*		
	신체적 학대	.048	.056	1.453		
	정서적 학대	.017	.023	.612		
불공정성	상수	.926		25.576	.389	252.336***
	방임	.261	.344	13.904***		
	신체적 학대	-.035	-.042	-1.320		
	정서적 학대	.264	.436	13.524***		

\*  $p<.05$ , \*\*\*  $p<.001$

표 3. 학대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F
수치심	상수	1.230		16.883	.182	88.053***
	방임	.213	.162	5.647***		
	신체적 학대	.056	.038	1.045		
	정서적 학대	.326	.308	8.276***		

\*\*\*p<.001

서적 돌봄, 불공정성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175 \sim .354, p<.001$ ).

학대가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적 돌봄에는 방임( $B=.062, p<.05$ )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성의 경우, 방임( $B=.261, p<.001$ ), 정서적 학대( $B=.264, p<.001$ )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학대는 정서적 돌봄의 15.0%를, 불공정성의 3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임( $B=.213, p<.001$ ), 정서적 학대( $B=.326, p<.001$ )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는 수치심의 18.2%를 설명한다.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커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부분매개효과, partial mediating),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수치심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결과는 각각 표 4, 표 5, 표 6에 나와 있다.

표 4를 통해서 방임과 부모화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보면, 먼저 방임과 정서적 돌봄의 관계에 있어서, 수치심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에서 방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 $\beta=.293, p<.001$ )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정서적 돌봄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회귀 분석에서 방임은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 $\beta=.109,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수인 수치심을 추가하여 방임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정서적 돌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수치심은 정서적 돌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 $\beta=.157, p<.001$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때 방임도 유의한 영향력( $\beta=.063, p<.05$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들로 미루어 볼 때 방임과 정서적 돌봄은 수치심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표 4. 방임과 부모화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	
	$\Delta R^2$	$\beta$	$\Delta R^2$	$\beta$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방임 → 수치심	.086	.293***	.086	.293***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방임 → 부모화	.132	.109**	.246	.496***
3단계 : 예측, 매개변인 → 종속변인 방임 → 부모화 수치심 → 부모화	.354	.063* .157***	.293	.429*** .228***

\*p<.05, \*\*p<.01, \*\*\*p<.001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임은 정서적 돌봄 변량의 13.2%를 설명하였고, 방임과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정서적 돌봄의 35.4%를 설명하였다.

또한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방임과 불공정성의 관계에 있어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보면, 방임과 불공정성은 수치심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임은 불공정성 변량의 24.6%를 설명하였고, 방임과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불공정성의 29.3%를 설명하였다.

표 5를 통해서 신체적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보면, 먼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돌봄의 관계에 있어서 수치

표 5. 신체적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	
	$\Delta R^2$	$\beta$	$\Delta R^2$	$\beta$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신체적 학대 → 수치심	.096	.309***	.096	.309***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신체적 학대 → 부모화	.011	.175***	.145	.381***
3단계 : 예측, 매개변인 → 종속변인 신체적 학대 → 부모화 수치심 → 부모화	.033	.054 .158***	.207	.300** .261***

\*\*p<.01, \*\*\*p<.001

심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에서 신체적 학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 $\beta=.309, p<.001$ )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정서적 돌봄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신체적 학대는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 $\beta=.175,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수인 수치심을 추가하여 신체적 학대와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정서적 돌봄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신체적 학대의 영향력( $\beta=.054$ )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수치심은 정서적 돌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 $\beta=.158, p<.001$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미루어 볼 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돌봄은 수치심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치심이 낮게 나타나면 신체적 학대가 있다고 지각될지라도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행동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돌

봄 변량의 1.1%를 설명하였고, 신체적 학대와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정서적 돌봄의 3.3%를 설명하였다.

또한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신체적 학대와 불공정성의 관계에 있어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보면, 신체적 학대와 불공정성은 수치심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신체적 학대는 불공정성 변량의 14.5%를 설명하였고, 신체적 학대와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불공정성의 20.7%를 설명하였다.

표 6을 통해서 정서적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보면, 같은 맥락에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돌봄은 수치심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있다. 즉, 수치심이 낮게 나타나면 정서적 학대가 있다고 지각될지라도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행동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 돌봄 변량의 21.9%를 설명하였고, 정서적 학대와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정서적 돌봄의 31.2%를 설명하였다.

표 6. 정서적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 속 변 인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	
	$\Delta R^2$	$\beta$	$\Delta R^2$	$\beta$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정서적 학대 → 수치심	.158	.397***	.158	.397***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정서적 학대 → 부모화	.219	.136**	.289	.538***
3단계 : 예측, 매개변인 → 종속변인 정서적 학대 → 부모화 수치심 → 부모화	.312	.131 .185***	.313	.472** .166***

\*\* $p<.01$  \*\*\* $p<.001$

또한 정서적 학대와 불공정성의 관계에 있어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보면 정서적 학대와 불공정성은 수치심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정서적 학대는 불공정성 변량의 28.9%를 설명하였고, 정서적 학대와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불공정성의 31.3%를 설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에서 경험한 물리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어린 시절 학대 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대가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대의 하위변인들 가운데 정서적 돌봄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방임으로 나타났고, 불공정성을 설명하는 변인은 방임과 정서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이 부모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곧 부모에 의해 심하게 방임된 자녀일수록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보고자 하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에게 적절한 물질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어 왔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오히려 정서적으로 자신이 부모를 돌보고 보호하고자 하는 역전된 욕구를 강하게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학대받거나 방임되어 성장하면서 스스로 보살핌을 받은 경험이 부족한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강박적으로 돌보

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는 이번 결과는, 학대 받는 아동은 부모에게 과도하게 충성하고자 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감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고, 주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높은 경계심을 갖는다는 이전의 연구결과(Crittenden & DiLalla, 1988; Kempe et al., 1962)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 중 많은 수가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입장도 있으나(Malinosky-Rummell & Hansen, 1993), 만약 그러한 적응이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욕구표현의 결과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적 적응이 아니라 부모화에 의한 피상적인 적응적 행동의 표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돌봄을 받고 싶은 내적인 욕구가 역전되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양육과 돌봄을 부모에게 주려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적응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희생하는 자녀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Davies, 2002)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공정성의 경우,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해 방임되고 정서적으로 학대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자녀가 부모의 짐을 과도하게 떠맡아서 부모-자녀 관계의 공정성을 해치는 수준으로까지 부모 역할을 하려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받은 자녀는 학대하는 부모를 달래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대응전략을 습득하게 되는데(Hennessy et al., 1994), 그러한 대응전략 중 하나로 선택되는 것이 바로 불공정성, 즉 자신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책임수행으로 부모의 학대 행위나 학대를 유발하는 분노가 통제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

의 부모화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대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대의 하위변인들 가운데 수치심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다. 즉, 부모에 의해 방임되고 정서적으로 학대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되었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그러한 부정적인 자아의식으로부터 고통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한편, 신체적 학대는 부모화나 수치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신체적 학대만으로는 부모화나 수치심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며, 또한 신체적 학대가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만으로 부모화나 수치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신체적 학대가 부모화나 수치심을 설명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녀가 신체적 학대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명분있는 처벌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인 손상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치감을 증가시켜서 자녀의 전체적인 자기(entire self)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부모화 하위 요인 중 정서적 돌봄과 학대의 각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에 의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수치심은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학대의 각 하위요인과 정서적 돌봄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방임과 부모화 하위요인인 정서적 돌봄은 수치심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방임은 정서적 돌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와 부모화 하위요인인 정서적 돌봄은 수치심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자체가 부모화 현상을 낳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수치심에 의해 매개될 때 부모를 과도하게 돌보는 정서적 돌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수치심이 낮게 나타나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가 있다고 지각될지라도 부모를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돌보는 부모화된 행동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학대의 하위요인과 부모화 하위 요인 중 불공정성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에 의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수치심은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학대의 각 하위요인과 불공정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불공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수치심은 학대와 부모화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대받은 경험이 수치심을 높임으로써 부모화 경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를 받을수록 수치심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전철은, 2002) 및 수치심과 부모화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Wells & Jones, 2000; 신주연, 2003)와도 일치한다. 또한 수치심이 학대 사건과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자존감의 관계를 비롯한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매개한다고 밝힌 바 있는 Feiring, Taska와 Lewis의 연구결과(1998)와도 일치한다. 즉, 학대받은 자녀는 전반적인 가치절하에 의해 자기를 손상시키는 부정적 정서인 수치심의 증가를 경험하고 이것이 부모화 경향을 촉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전에도 부모화와 학대, 부모화와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부모화가 학대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있었으나 (신주연, 2003; Carroll, & Robison, 2000; Cleary, 1992,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학대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갖는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없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화 현상을 연구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성장과정에서의 학대경험과 청소년기 부모화의 관계를 알아보고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학대와 부모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특히 부모화가 진행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정체감의 형성시기인 청소년기에 학대와 부모화가 어떠한 형태로 발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부모화라는 현상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상담이나 교육 현장에서 부모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고 부모의 뒤통까지 짐 지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부모화가 만성적인 부적응을 이면에 담보한 표면적인 적응 반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러한 부모화된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그 발달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모화의 부적응적인 측면만을 다루었으나 Jurkovic(1997)은 파괴적 부모화만이 아니라 적응적인 부모화도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조은영의 연구(2004)에서도 적절한 부모화가 건강한 수준의

배려 및 책임감을 갖게 하는 등의 적응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모화가 수치심을 매개로 부적응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경우와 적응적으로 발달하는 각각의 경우가 어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지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족과 관련되는 문제는 문화적 요인이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부모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외국의 질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장차 우리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학대 및 방임적도는 본인의 과거 회상을 기초로 하여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수치심은 상당히 무의식적인 정서이며 자각될 때 고통스러운 경험을 유발하는 정서이기 때문에(Harder, 1995) 지필검사 과정에서 정서가 부인,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단적 연구나 투사적 검사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면 더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매개변인으로 수치심 경향성을 가정하였는데, 수치심의 매개만으로 학대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다른 중요한 정서적 특질들을 추가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2006).

-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집단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9-32.
- 김현수 (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병호 (1995). 효윤리의 법규범화와 그 계승.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23-248.
- 박주 (2000). 조선시대의 효과 여성. 서울: 국학자료원.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경험이 재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중은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철은 (2002). 심리적 피해대 여성의 심리적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은수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인식 정서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9(2), 73-89.
- 황은수 (2006). 아동의 학대 경험이 자기인식 정서와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9(3), 67-84.
- Andrews, B. (1995). Bodily sham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277 - 28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szormeny-Nagy, I., &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 (1976). Theory and practice in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pp. 42 - 90). New York: Gardner Press.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 Anger*, (Vol. 2 of Attachment and Loss). London: Hogarth Press; New York.
- Carroll, J. J., & Robinson, B. E. (2000). Parentification and depression among adult children of workaholics and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The Family Journal*, 8, 360 - 367.
- Cleary, M. J. (1992). Shame and Shame-based syndromes: Implications for Health Education. *Health Values*, 16(6), 47-54.
- Crittenden, P. M., & DiLalla, D. L. (1988). Compulsive compliance: The development of an inhibitory coping strategy in infa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585 - 599.
- Crozier, W. R. (1998). Self-consciousness in shame: The role of the 'other'.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28, 101-114.

- Davies, P. T. (2002).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 551 - 555.
- Feiring, C., Taska, L., & Lewis, M. (1998). The role of shame and attributional style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adaptation to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3, 129-142.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3.
- Gilbert, P., & McGuire, M. (1998). Shame, social roles and status: the psychobiological continuum from monkey to human. In P. Gilbert and B. Andrews(Eds.),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pp. 99 - 1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lickauf-Hughes, C., & Wells, M. (1997). *Object relations therapy: An individualized and interactive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Jason Aronson.
- Godsall, R. E., & Jurkovic, G. J. (1995).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Youth*. Atlanta, GA: Georgi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Harder, D. H. (1995). Shame and guilt assessment, and relationships of shame and guilt proneness to psychopathology. In K. Fischer & J. P. Tangney (Ed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Empirical studies of self-conscious emotions*. New York: Guilford.
- Harder, D. W.,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6, pp. 89-11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erman, J. L. (1997).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Books.
- Hennessy, K. D., Rabideau, G. J., Cicchetti, D., & Cummings, E. M. (1994). Responses of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to different forms of interadult anger. *Child Development*, 65(3), 815-828.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Kuperminc, G. P., Casey, S. (2000). *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Available from George J. Jurkovic at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MSC 2A1155, 33 Gilmer ST. SE Unit, Atlanta, GA 30303-3080).
- Jurkovic, G. J., Kuperminc, G. P., Sarac, T., & Weisshaar, D. (2004). *Role of Filial Responsibility in the Post-war Adjustment of Bosnian Young Adolescent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Kaufman, J. L., & Zigler, E. (198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 129-15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mpe, H. C. & Helfer, R. E. (1974). *The Battered child syndro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mpe, H. C., Silverman, N. F., Steele, J. B., Droegemueller, W., & Silver, K. H. (1962).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 17-24.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7).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New York: Guilford Press.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Free Press.
- Loader, P. (1998). Such a shame - A consideration of shame and shaming mechanisms. in families. *Child Abuse Review*, 7, 44-57.
- Main, M., & Hesse, E. (1990). Parents' unresolved traumatic experiences are related to infant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Is frightened and or frightening parental behavior the linking mechanism?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161-18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linosky-Rummell, R., & Hansen, D. J. (1993).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Bulletin*, 114, 68-79.
- Radbill, S. X. (1974). A history of child abuse and infanticide. In S. K. Steinmetz & M. A. Straus (Eds.), *Violence in the family* (pp. 173-179). New York: Harper & Row.
- Radbill, S. X. (1987). Children in a world of violence: A history of child abuse. In R. E. Helfer & R. S. Kempe (Eds.), *The battered child* (pp. 3 - 3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eff, T. J. (1988). Shame and conformity. The defence-emotion. system. *American Psychological Review*, 53, 395-406.
- Shott, S. (1979). Emotion and social life: A symbolic interactionist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6), 1317-1334.
- Tangney, J. P. (1995). Shame and guil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114-141).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469-478.
- Valleau, M. P., Bergner, R. M. and Horton, C. B. (1995). Parentification and caretaker syndrome: An empirical investigation. *Family Therapy*, 22, 157-164.
- van der Kolk, B. A., & Fislser, R. E. (1994). Childhood abuse & Neglect and loss of self-regulation. *Bulletin of Menninger Clinic*, 58, 145-168.
- Wekerle, C., & Wolfe, D. A. (1996). Child maltreatment. In E. J. Mash & R. A. Barkley, (Eds.), *Child psychology* (pp 492-



- 537). New York: Guilford Press.
- Wells, M., & Jones, R. A. (1996). An empirical study of parentification and person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 145-152.
- Wells, M., & Jones, R. A.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원 고 접 수 일 : 2007. 3. 5

수정원고접수일 : 2007. 4. 20

게 재 결 정 일 : 2007. 5. 1

## **Effect of Juveniles' Experience of Being Abused on their Shame-Proneness and Parentification**

**Jung-Sook Lee**

**Eun-Kyung Kim**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juveniles' experience of being abused on their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We also explored the agential effect of shame-proneness on parentification for juveniles who are abused. The participants included 597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We measured the subordinate dimensions of abuse and neglect including negligence,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We measured emotional parentification and unfairness using the 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FRS-Y) and shame-proneness using the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 (PFQ-2). The results showed that negligence accounted for significant variance in emotional caregiving; negligence and emotional abuse accounted for variance in unfairness. In addition shame-proneness partially mediated each subordinate factor of various kinds of abuse such as negligence,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and unfairness. We designed this study to provide some help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arentification through exploring its relations to abuse, and shame-proneness. It appears that the experience of being abused can affect parentification through shame-proneness in the growth process and parentified behavior can be carried by a sense of shame caused by abuse.

*Key words : negligence,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hame-proneness and parentification*